

(auri)

한옥정책 BRIEF

No. 14

한옥 미학의 특징 및 발전방안

이강민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박민정
국가한옥센터 연구원



www.hanokdb.kr

한옥정책브리프는 한옥정책과 관련된 지식, 문화, 산업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학술자료입니다.



1. 한옥의 인문학적 연구와 미학

한옥의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옥의 물리적 보급에 중점을 둔 연구와 더불어 그 내면의 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란 한옥 문화의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상징과 의미를 말하며,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이론에 통섭의 방법론을 통해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을 결합시킴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이들은 한옥 문화 속의 종교, 신앙, 가치관, 상징 등의 세계관과 관련된 주제, 기후, 풍수, 입지, 친환경성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제, 신분, 의례, 민속, 장인 등 사회제도와 관련된 주제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지식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기존 한옥 문화의 가치 서술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서술되기 시작한 한옥 혹은 한국건축의 가치 서술은 기본적으로 근대 미학의 범주에 속하는 작업이다. 건축 문화의 가치 판단은 진리의 규명이나 윤리적 판단보다는 감각적, 심리적 효과에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학적 판단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한옥미학의 구성을 살펴보는 일은 한옥문화의 내실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한옥미학 서술의 대표어휘

한국미학과 건축사학 등의 주요 저작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한옥미학의 술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어휘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 세키노 타다시(関野貞)로부터 유래한 섬세미, 섬약미 계통의 어휘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비애미를 거쳐 고유섭의 적조미로 이어진다. 쓸쓸한 느낌의 술어들은 조형에서 면과 색보다는 선의 미학을 설명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유연한 곡선을 사례로 들면서 율동성도 또 하나의 미학술어로 제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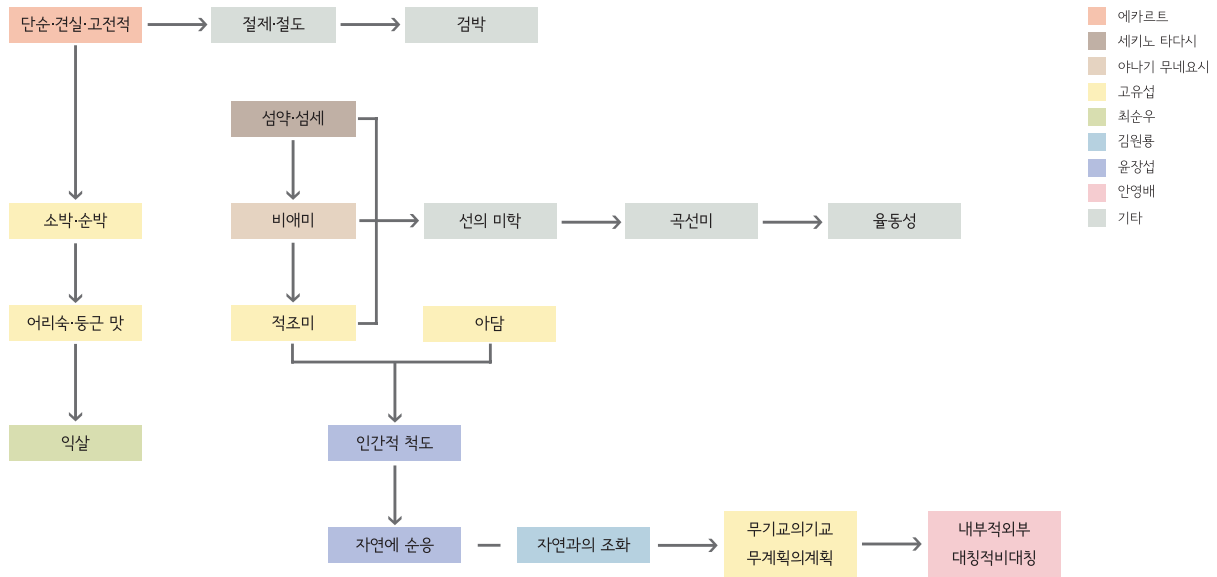


그림1. 주요 술어의 발전 과정

한편, 고유섭에 의해 강조되었던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어휘는 한국민족에 대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미학개념으로서 어리숙하고 동근 모습과 통했으며, 최순우에 의해 둥글고 너그러운 익살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고유섭의 무기교의 기교는 한옥미학의 생산사적 특징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초석이 되었다. 안영배가 구체화시킨 한옥공간의 내부공간이면서 외부공간인 특징, 한옥 배치의 대칭적 비대칭성 등은 모두 무기교의 기교 혹은 무계획의 계획에서 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 아담하면 서도 격조를 갖는 건축적 특징은 윤장섭 등에 의해 인간적 척도로 정의되었으며, 자연에 순응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자연과의 조화는 초기 한옥미학으로부터 중요시되었던 개념으로서 무기교의 기교가 한국미의 특징이 되어야했던 더욱 근원적인 기초로서 자리매김 되었다. 김원룡은 이를 미추의 세계를 이탈한 미 이전의 미로 파악했으며 한국미의 특색으로서 자연주의를 정의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인위적인 기교를 적게 쓰는 시공방식 등은 한옥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에카르트(A. Eckardt)의 평가처럼 한국미술의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고전적이라는 술어로 표현되었다. 단순하고 견실한 아름다움은 소박미, 순박미 계통의 미학과 통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절제, 절도의 강직함으로 이어졌으며, 유학적 세계의 선비정신과 통할 수 있는 검박함의 미학으로 발전했다.

다양한 문헌에서 추출된 방대한 양의 어휘들의 상호관계는 이들을 도식화함으로써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옥미학지도를 작성하면 술어와 술어, 술어와 건축적 근거의 관계 정의를 명료하게 정리함으로써 수많은 술어 간의 관계를 하나의 틀로 엮어낼 수 있다. 술어들의 개념적 크기, 즉 내용의 풍부함을 검출하거나, 이에 이웃한 유사 개념들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으며, 노드가 집중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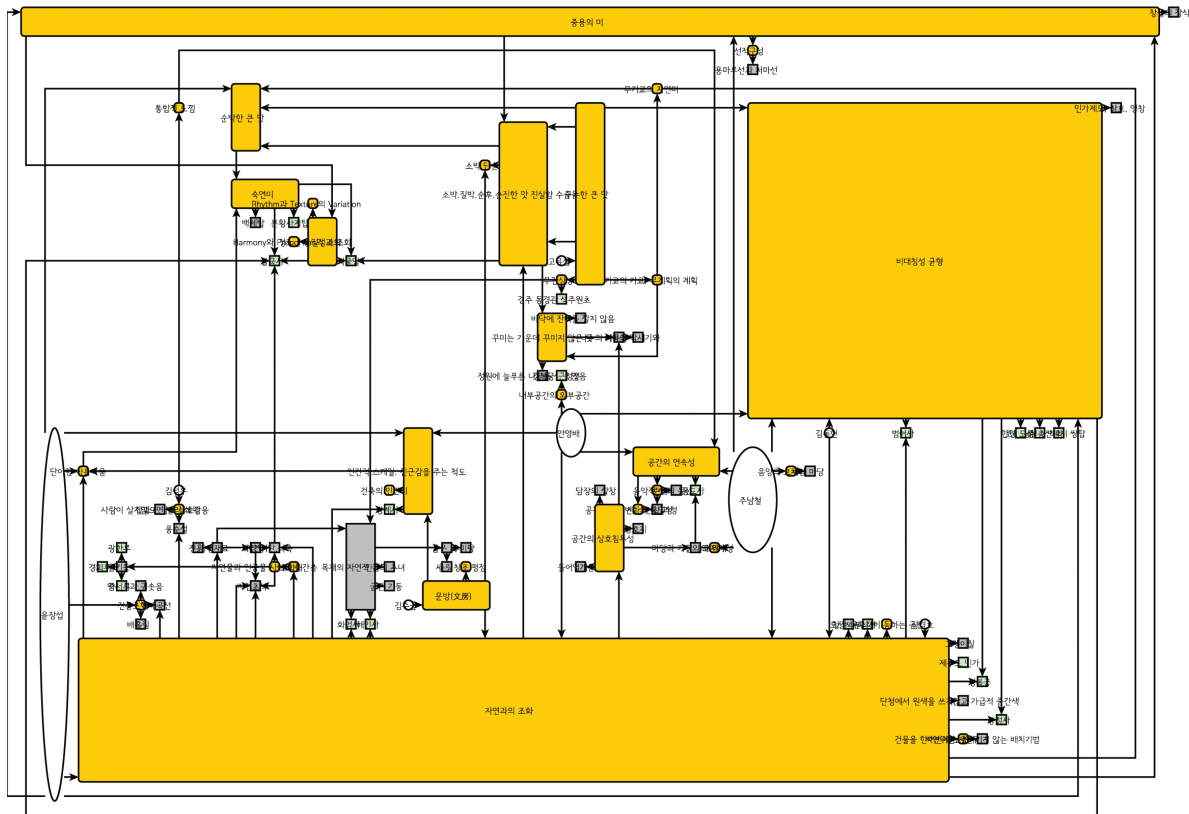


그림2. 한옥미학지도 예시

있기 때문에 주요 개념의 집중도를 파악하는데도 유리하다.

그림 2는 고유섭, 주남철, 안영배, 윤장섭, 김성우, 김병운, 장경호, 김동현 등 8인의 저술을 바탕으로 한옥미학 술어와 그 건축적 근거를 나타낸 한옥미학지도의 시안이다. 여기서 독보적인 비중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자연과의 조화’와 ‘비대칭적 균형’이다. 이 두 술어는 한옥미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상징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옥미학의 서술특징

대표적인 건축물 사례조사를 통해 한옥미학 서술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을 통해 추출한 술어가 실제로 유효한 것인지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옥미학 서술의 특징을 도출해보았다. 대중성과 학술적 가치 양쪽 측면을 동시에 만족하는 대상 선정을 위해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신문 기사에 수록된 한국 전통건축을 조사한 결과¹, 남대문, 경복궁, 종묘, 창덕

궁, 불국사, 해인사 등의 순서대로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미학적 서술이 부각된 기사로 범위를 좁혀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즉, 부석사, 불국사, 소쇄원 등이 남대문이나 경복궁에 비해 미학적 가치 서술의 중요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단행본에 소개되는 사례들을 합쳐보면 부석사, 불국사, 병산서원, 소쇄원, 도산서원 등이 한옥미학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사례가 된다.

표1. 신문 데이터베이스 키워드 검색 결과

구분	제목+본문 검색		제목 검색		기사내용 검토	
	대상	합계	대상	합계	대상	합계
1	남대문	20054	남대문	1516	부석사	11
2	경복궁	5798	경복궁	465	불국사	9
3	종묘	4358	종묘	378	소쇄원	7
4	창덕궁	2535	해인사	278	법주사	5
5	불국사	2505	불국사	261	남대문	4
6	해인사	2392	창덕궁	234	경복궁	4
7	통도사	1161	법주사	124	수덕사	3
8	송광사	902	송광사	118	종묘	3
9	법주사	798	통도사	116	화엄사	3
10	창경궁	726	창경궁	88	금산사	2

표2. 한국건축 미학 서술의 내용

대분류	소분류	부석사	불국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쇄원
입지	지형	●		●	●	●
	풍경	●			●	●
	좌향			●	●	
	재료		●			
공간 (동적요소)	대칭/비대칭	●	●	●		
	축(극적효과)	●	●	●		
	중첩(입체)	●		●	●	●
	연결	●			●	●
형태 (정적요소)	곡선	●	●			
	구조미	●	●			
	비례	●	●			
	스케일		●			

1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 및 미학서술어 추출을 위한 문헌조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건축물 약 30개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검색

위 5건의 사례를 기술한 단행본과 신문기사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본 결과,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서술이 가장 많았고, 동적 균제, 공간 전개, 구조, 곡선 등 건축 미학에 관한 다양한 술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을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해 보면 크게 '자연', '공간', '형태'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이란 지형, 풍경, 좌향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한국건축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항목이다. '공간'은 3차원적 동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대칭과 비대칭, 축을 이용한 공간전개의 극적인 효과, 중첩에 의한 입체적 공간감, 공간 사이의 연결관계 등에 대한 서술이 해당된다. '형태'는 2차원적 정적 요소에 대한 서술로, 곡선미, 구조미, 비례 및 스케일 등과 관련된 서술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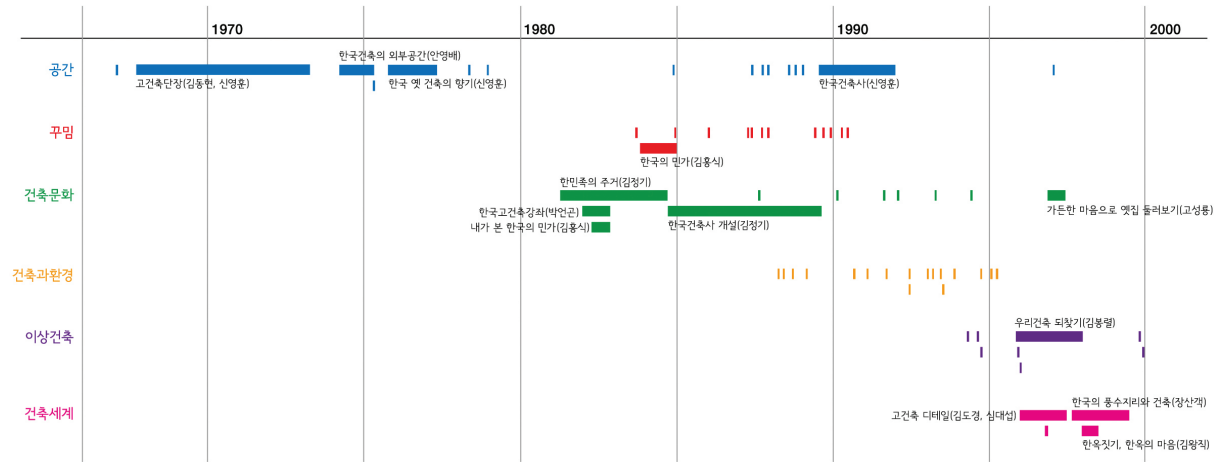
이들 카테고리에 따라 대표 건축물의 서술을 분석하면, 한옥미학 서술에 있어서 '자연'과 '공간'은 필수 항목인데 반해 '형태'는 사례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형태'에 해당하는 곡선미, 구조미 등은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 완결성을 강조하는 어휘인데 이는 건축에서 한국성을 정의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병산서원, 도산서원, 소쇄원의 사례에서처럼 건축물의 형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간적인 연결 특성이 한옥미학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4. 한옥미학의 매체

대중매체는 한옥미학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건축 관련 잡지에 나타난 한옥미학은 건축에서 한국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천착하고 있다. '조선과 건축' 등 1920년대에 창간된 초기의 잡지들에서는 답사의 대상으로서의 고적, 개량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한정된 한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글로 쓰여진 잡지는 1955년 대한건축학회의 '건축', 1966년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등이 먼저 발간되었고, 특히 1966년에 창간된 '공간'은 초기에 한옥미학을 정립하고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순우, 신영훈, 김동현, 안영배 등의 연재물은 한옥의 지적기반 및 해석방식을 제공하였고, 한국성 혹은 전통과 관련된 특집 논쟁들은 한국 건축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1977년에 창간된 '꾸밈'에서는 당시 소장층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성 논의를 확장시켰다. 1980년대에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등이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한옥 관련 특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이상건축', '건축세계' 등의 잡지가 가세하면서 담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고건축 강좌, 답사기, 한국성 논쟁 등 익숙한 주제의 틀을 깨는 제3의 논의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표3. 주요 건축잡지 중 한옥미학 관련 연재 및 특집 기사 분포



연재기간	잡지명	연재명	총편수	저자
1967.09-1973.02	공간	고건축단장	34	신영훈, 김동현
1974.02-1975.04	공간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8	안영배
1975.10-1977.07	공간	한국 옛 건축의 향기	12	신영훈
1981.02-1983.07	공간	한국의 폐사	27	이재준
1981.11-1984.08	건축문화	한민족의 주거	34	김정기
1982.01-1982.10	건축문화	한국고건축강좌	10	박언곤
1983.10-1984.12	꾸밈	한국의 민가	8	김홍식
1984.09-1989.07	건축문화	한국 건축사 개설	59	김정기
1989.07-1991.12	공간	한국건축사	28	신영훈
1995.11-1997.12	이상건축	광복 50주년 우리건축 되찾기	26	김봉렬
1996.01-1997.06	건축세계	고건축 디테일	18	심대섭, 김도경
1996.11-1997.05	건축문화	가든한 마음으로 옛집 둘러보기	7	고성룡
1997.09-1999.06	건축세계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20	장산객
1998.01-1998.06	건축세계	한옥짓기, 한옥의 마음	6	김왕직

신문 기사 역시 당시 잡지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옥과 관련된 최초의 연재기사는 1922년 동아일보에 실린 야나기 무네요시의 '장차 일케된 조선의 건축을 위하여'이며, 대중들을 위한 신문기사에서는 주로 팔도 순례를 통해 고적을 답사하는 내용을 연재하였다. 6개월 이상 연재된 기사들은 60년대 동아일보의 '국보순례', 70년대 경향신문의 '한국의 재발견', 80년대 경향신문의 '그터 최영희 교수의 한국사 기행', 90년대 조선일보의 '우리문화 이웃문화', 경향신문의 '문화재는 살아있다', '문화재를 찾아서' 등이 대표적이다.

5. 한옥미학의 확장을 위하여

한옥문화의 세계화란 결국 한옥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어 그 정신과 생활양식이 널리 공유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검증과 반성을 통해 한옥문화의 내용 자체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히려 공감을 얻고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는 후자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한옥문화를 둘러싼 막연한 감상이나 과장된 신화는 벗기되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정서는 보존하는 것, 또한 풍부한 스토리텔링으로써 다양한 장점들을 포괄하는 것은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첩경이 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옥미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옥미학지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옥미학 술어는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한 가지 술어으로써 한옥미학의 본질을 확신하고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술어는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 설명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 네트워크는 항상 열려있는 체계로서 건축에서의 한국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학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의 '자연과의 조화'와 건축적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의 '비대칭적 균형'은 한옥미학의 고착된 특징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옥미학의 특성에 맞추어 현대적 가치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가들이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또한 자기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옥미학의 추종자를 자처했다. 건축가들에 의해 한옥건축은 '텅 빈' '무용의 공간'이면서 '청빈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정의되었고, 나지막하게 배치되거나 매스를 분절하거나 마당을 만드는 행위들은 모두 한옥미학을 계승한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구체적인 질감이나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건축적 조형 가치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강, 심리적 안정 등 한옥의 장점으로 회자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발굴되어 현대건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옥미학의 연구는 한옥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 지점을 검출해내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며,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정제된 한옥미학의 기초 개념들은 향후 한옥문화의 서술에서 주요한 술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연구원 박민정

mjpark@auri.re.kr